

學 究 贅 辭

柳 在 泳
(圓光大 國語國文學科 教授)

I

내가 體驗談을 쓴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무슨 큰 일을 해낸 사람도 아니고 또 무슨 좋은 理想을 품고 살아온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더한 것과 상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딱한 일이기도 하다. 重言復言하던 속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去頭切尾하면 할 말이 적다. 그러나 교수 상호간 사석에서 만나 가볍게 흥허물 없이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쓰는 것이다.

내가 大學講壇에 선 지는 오래되었다. 時間講師 生活도 8년이나 해 보았고, 館長이니 學長이니 하는 補職을 가진 教授로도 5년을 보냈다.

생각해 보면 能力이 없어 認定을 못 받아 時間講師를 그리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能力이 있어 補職을 맡은 것도 아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묵묵히 지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고지식한 性格 때문이었다고나 할까.

따지고 보면 시간강사 생활이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물론 그때 講師料로 생활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연 行動半徑이 좁아지고 그때 많은 시간을 얻게 되었다. 그때만 하여도 하루 종일 문을 닫고 방에 틀어박혀 있어도 찾아

오는 이 없었지마는, 이것이 讀書와 精進을 위해서는 얼마나 값이 있는 시간이었던가? 생활하는 데는 逆境의 지난날이었지만 이때가 오래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다.

나는 그때에 비교적 많은 책을 읽었다. 單行本이나 論文들을 專攻分野의 것은 물론이고 교양 서적도 가리지 않고 읽어왔다. 나는 그때처럼 많은 책을 대한 적이 없다. 이해되지 않는 論文은 읽고 또 읽어 보았고 資料를 다루는 方法, 問題를 처리하는 限目도 이때 걸러 둔 셈이다.

補職이란 걸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나 내심으로 더러는 魅力이 있어 하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교수로 행세하려는 것보다 補職으로 행세하려는 교수들도 많다. 아마 이것도 世態에 따름인가? 대학교수들이 왜 이렇게 安逸한 實利에 밝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獨善의인 생각인지는 모르나 補職은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보직에 있는 동안 부딪치는 곳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믿고 주장하는 쪽보다는 그에 반대되는 경향으로 되어 가는 게 많았다.

그래서 항상 일방적인 判定敗를 당했고, 늘 實情에 어두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나는 보직에 있는 동안 마음 편한 날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어떤 일이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도 자리를 비운다

든가 주어진 직무에 태만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보직이란 그 직무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 맞추어 시간을 유용하게 이용하면 그리 큰 研究의 空白는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나는 보직에 있는 동안 「白雲小說研究」를 出版하고 「補閑集」과 「女範」을 譯註했다. 이런 것은 대부분이 註釋이기에 辭典類를 옆에 두고 틈이 날 때마다 하나 하나 찾아 놓으면 나날이 불어나기 마련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도 그럴 법한 말이라 본다.

II

나는 글을 쓰는 것보다는 글을 읽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쓴 글이 적고 그나마 지금에 와서 보면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것도 있다. 처음에 쓴 것은 남의 흉내를 낸 것이 많았고 나중의 것은 專攻을 넘어서 글이 더러 있어 그 쓴 것으로 보면 전공이 무엇인가를 알기 模糊한 不透明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 강단에 서면서부터 國語學 分野 全科目을 혼자 맡아 講義했으니 講義準備하느라 남의 著書나 論文에 매달리는 데 시달렸고 때로는 國文學概論까지 맡아 강의한 적이 있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나는 아마도 그런 專攻이 불확실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리라 본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쓴 論文들을 간추려 보면 地名에 관한 것이 몇 篇 있다. 「三國史記」地理志에 나오는 地名, 「高麗史」地理志에 나오는 地名, 「龍飛御天歌」註解에 나오는 地名, 「世宗實錄」地理志나 「新增東國輿地勝覽」등에 나오는 地名, 傳來 俗地名, 現在 地名으로의 變遷過程을 통해 밝혀 본 것이다.

나는 文獻에 나타난 地名이 현 지명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진 傳來 俗地名의 研究를 거쳐야 해결되는 것이다.

地名 資料를 모으고 처리하다 보면 우리 국어가 漢字語로 바뀌어 表記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類型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옛날 縣

治所 근처의 산 이름에 ‘갓피’가 많은데 이것이 한자 표기로는 城山 尺山 柏山 杯山……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라든가 옛날의 군인 駐屯地인 수 자리였던 곳이 뒤에 ‘숫고개’ ‘숫골’이라 불리우다가 뒤에 한자 표기 炭峴 炭嶺 炭洞 酒洞……등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

裡里에 있는 杯山은 沃野縣治 뒤에 있는 갓피(城山)의 異記요, 益山郡 金馬面에서 礪山面 쪽으로 넘어가는 숫고개는 「高麗史」太祖 十九年條에 보이는 ‘餘炭嶺 駐營馬城’과 「新增東國輿地勝覽」益山郡 山川條에 나오는 軍入山과 같이 보면 바로 현재 이곳에서 쓰고 있는 俗地名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쓴 論文이 拙稿「全北地方傳來 地名의 研究」(원광대 논문집, 연구논문보고서 어문계)과 「杯山의 名稱에 대한 考察」(國語國文學研究), 「彌勒山 名稱에 대한 考察」(馬韓百濟文化研究)이다.

다음으로 漢字의 借用體系에 관한 것 몇 개와 訛語의 語義에 관한 논문이 있다. 나는 여기에서 訓民正音 제정 이전부터 借用해 쓴 漢字와 시대에 따라 借用의 樣式이 달라지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한자를 중국 원고장과는 다른 뜻으로 쓰는 글자가 있고, 또 글자는 漢字 같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쓴 글자가 있음을 밝히고(이 부분은 저 日人 學者 鮎貝房之進의 「雜攷」에 힘입은 바 많음), 또한 우리 나라에서만 쓰이는 漢字熟語가 있음을 밝혀 보았다(「이름 表記의 한 研究」, 원광대 논문집).

나는 우리 국어사전에 대하여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적인 漢字熟語 처리인데, 우리 국어사전들을 보면 대개 《제도》로 표해 놓고 그런 말을 실었는데, 制度에 관계 없는 韓國의인 漢字熟語(例: 查頓, 婦椽, 田畚, 堡地……)는 아무런 標識 없이 처리했다. 日人들은 日本式 漢字語를(日)로 표해 놓았다. 우리 國語辭典에서도 이런 말들은(한)으로 표해 놓았으면 한다.

또 語源이 한자어에서 온 것은 설사 변음되고 우리 국어와 합성되어 버렸어도 이걸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으며(이건 많이 밝히기도 했다), 중국의 故事熟語면 原典에 실린 대로 써야 한다.

한 예를 들면 ‘刮目相待’를 ‘刮目相對’로 써서는 안 된다. 「三國志」吳書 呂蒙傳에는 ‘刮目相待’로 되어 있는데도 우리 국어 사전들에는 거의 다 ‘刮目相對’로 적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古語의 풀이는 정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카니와’가 ‘커녕’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렇게 풀이하면 글썽의 呼應이 맞지 않는다 (「카니와에 대한 一考」, 國語國文學研究).

Ⅲ

내가 古典 譯註에 손을 댄 것은 10餘年前의 일이다. 難解한 곳은 지금은 故人이 된 澹齋 金鳳文先生께 물어 해결한 곳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辭典이나 參考書에 의거하여 해결한 것도 많다. 그래도 解決되지 않는 곳은 그대로 남겨 놓고 뒷 사람에게 미루고 그대로 출판했던 것이 「破閑集」 譯註이다.

지금도 생각나는 건 ‘張公三十六爐錢’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大漢和辭典」 「事文類聚」 「淵鑑類函」 「佩文韻府」 등을 다 뒤져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뒤에 지금 全州大에 있는 柳豐淵 교수가 그때 교육개발원에 다니며 故 咸樂熏先生 門下에 들어 다니던 때라 그 분께 물어 보라 했더니 唐 張說의 故事라 하더라는데 나는 그 뒤 「唐書」나 「舊唐書」의 列傳 張說條를 찾아 보았건만 그런 걸 찾아 볼 수 없었다(혹 다른 책에 있는지 모르겠다).

古典을 이해하려면 그 글쓴이의 意圖를 잘 알아야 하고 그러자면 故事에 관계된 부분이면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만 이해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글자도 허술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또 「破閑集」에 나오는 ‘白頭花鈿滿面 不若西施半粧’이라는 句節도 「高麗史」에도 그렇게 나오고 「新增東國輿地勝覽」 開城府 紗樓條에도 다 같이 그렇게 나온다. 이건 곧 白頭深目を 지닌 鍾離春 같은 추한 여자에게 꽃으로 단장해 놓는다 하더라도 美人인 西施가 반쯤 화장한 것만 못하다는 말로 쓰인 것인데 「海錄碎事」 文學賦에는 ‘徐妃半粧’이라 되어 있다.

西施는 半粧한 일이 없고 梁 元帝의 徐妃(昭佩)가 半粧한 事實이 있기에 徐妃半粧이라 할 것

을 우리의 古典에는 西施半粧으로 잘못 나오는 것도 興味로운 일이다.

또 「白雲小說」 七賢說에 나오는 ‘鑽核人’도 中心的인 人物로 보아서는 큰 잘못이다. 오얏씨가 나지 않도록 뚫어 봤다는 竹林七賢 중의 한 사람인 王戎과 같은 인색한 인물을 가리킨 말이다.

곧 李奎報가 吳世才를 따라 당시 七賢으로 자처하던 竹下의 모임에 참여하다가 그 뒤 世才가 東都로 간 뒤에도 혼자 그 자리에 참석했다. 이때에 李湛之가 七賢 중 世才가 빠졌으니 그때가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李奎報는 七賢이 무슨 官職이기에 그 자리를 메꾸려 하며, 또한 中國의 竹林七賢들도 嵇康이 죽은 뒤 그 자리를 메꾸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으며, 七賢으로 자처하던 晉代의 人物 중에도 王戎과 같은 사람은 자기 집 오얏씨가 퍼질까 보아 나지 않도록 그걸 뚫어 봤다는 인색한 人物이었는데 당신네들 七賢 중에는 누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야유하는 詩句에 나오는 말이다.

榮叅竹下會 快倒甕中春
未識七賢內 誰爲鑽核人

우리 古典의 하나인 「龍飛御天歌」는 오랜 歲月을 두고 만든 完璧을 기한 力作이라 보아진다. 거기에 보면, 우리 말로 된 노래가 나와 있고 그걸 詩經體의 漢詩로 對譯해 놓고 거기에 詳細한 註解를 해 놓았다.

나는 우리의 古典을 國譯하는 때도 이 「龍飛御天歌」의 註解와 같은 그런 詳細한 註解가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이 「龍飛御天歌」의 제작 意圖나 그 內容의 眞僞는 여기서 別問題로 두고).

나는 그런 方法을 배워 서투른 솜씨로 詩話集 몇 개를 譯註해 보았다. 그러는 가운데 내 자신 먼저 알고 있던 사실 중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적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하나 하나 그 본바닥부터 알아 보자는 욕심으로 거기 관계되는 原典을 살피는 가운데 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참고삼아 기억에 남아 있는 몇 가지 사실을 들어 보면, 「白雲小說」이 李奎報 自身の 自撰 詩話集일 수 없다는 사실을 뚜렷이 알게 되었다.

이 「白雲小說」은 이름부터가 益齋의 樸翁稗

說)과 비슷한데, 그것은 初期의 詩話集인 李仁老의 「破閑集」에 맞서 崔滋의 「補閑集」(이것도 처음 이름은 「續破閑集」이라 함)이 있는 것처럼, 相對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것은 朝鮮朝에 들어와 적어도 徐居正의 「東人詩話」以後에 어떤 사람이 「東國李相國集」에서 詩話的인 內容의 것을 拔萃하여 만든 것임이 명백하다. (거기에는 明初 蔣一葵의 「堯山堂記」에서 引用된 글이 있음).

자갈한 것이긴 하나 雙明齋는 李仁老의 號가 아니고 崔謙의 堂號이며, 또 文昌右相은 右僕射의 異名이라는 것과 <松江歌辭> 關東別曲에 나오는 '白蓮花'는 唐 詩人 盧仝의 月蝕詩에서 引用한 것으로 달을 이른 것……등이다.

IV

贅說 같지만 나는 한글 作品인 <松江歌辭>만 가지고 松江文學을 말하지 말고 「松江集」에 나오는 한문 작품도 연구해 보아야 松江의 眞面貌가 나타나며, 이렇게 相互補完하여야 더 充實한 結果를 맺으리라 본다. 물론 다른 作家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國譯에 있어서도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誤譯, 誤解가 없이 出刊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弊害가 적지 않으리라 본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보게 된다. 그러기에 설사 자기가 잘못 알았고 남이 말한 것이 옳은 것이더라도 이걸 그르다고 하기 쉬운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먼저 나온 誤譯·誤解書가

얼마나 많은 害를 끼치게 되는가 말이다. 쉬운 것이라도 잘못 알았다가 다시 고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지 못한 몇몇 專門家나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야 어찌 쉽게 고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바로 큰 問題요, 이런 國譯은 功보다 害가 많다 해도 좋을 것이다.

方向도 잘 모르는 親切한 길 案内者가 되는 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걸 깊이 생각한다면 國譯하고 싶은 용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却說. 모르는 걸 해결하기 위해 참고로 해야 하는 책을 이용하는 방법과 책을 보는 눈이 이제 는 조금은 트인 것 같다.

나는 古典 國譯을 손대면서부터 바로 맞부딪치는 問題로 거기 引用된 典故 등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것과 관련 있는 고전 자료들을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것이나 中國 것은 거의 다 구해 놓는다는 생각으로 影印된 것은 힘 닿는 대로 다 사 모았다. 그래서 이것이 적지 않은 내 보배가 되었다.

同僚教授들이 때론 그 方向을 專攻하는 학생들도 없는데 왜 그리 많이 모으기만 하느냐고 하던, 나는 웃으면서 “책을 많이 모아 두면 文昌星이 비친다고 하니, 혹 글 잘하는 손자라도 낳을는지 알아”하고 대답하기도 한다.

이 책 모으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先人들의 文集 수집에 힘을 쓰고 우선 가까운 이 지방 것이라도 모두 모아 그 概略이라도 정리하여 뒤에 남겼으면 하는 마음이다.

*